

#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

【지역이슈분석 2011-6】

2011. 8. 19.

## 아프리카 경제대국 나이지리아의 성장잠재력 분석

### 목 차

I. 나이지리아에 대한 시장의 평가 .....	1
II. 최근 나이지리아 경제성장 추이 .....	2
III.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동력 분석 .....	6
IV.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.....	10



■ 2000년대 초반의 브릭스(BRICs)에 이어 향후에는 신흥투자시장으로 넥스트-11(Next-11) 또는 마빈스(MAVINS)가 세계 경제의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 이하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로는 유일하게 넥스트-11과 마빈스에 포함되어 주목받는 나이지리아의 성장잠재력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.

## I. 나이지리아에 대한 시장의 평가

### □ 브릭스의 뒤를 잇는 대표적인 신흥투자시장

- 골드만삭스는 2005년에 발표한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브릭스에 이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성장국가로서 나이지리아 등 11개국을 선정하였음.
  - 이들 소위 넥스트-11(Next-11)에는 터키, 방글라데시, 이집트, 인도네시아, 이란, 멕시코, 나이지리아, 파키스탄, 필리핀, 베트남, 한국이 포함됨.
-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10년에 향후 10년 간 주목해야 할 국가들로서 인구증가율이 높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이지리아 등 6개 신흥시장을 언급함.
  - 이들 소위 마빈스(MAVINS)는 멕시코(Mexico), 호주(Australia), 베트남(Vietnam), 인도네시아(Indonesia), 나이지리아(Nigeria), 남아프리카공화국(South Africa)으로 구성됨.

### □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전망

- 2011년 6월에 모건스탠리는 국제 유가 상승,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나이지리아가 2025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추월하여 아프리카의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음.
  - 나이지리아는 2011년 8.4%, 2012년 8.5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하여 2016년에는 GDP가 4,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


- 반면, 현재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<sup>1)</sup>은 2011년과 2012년에 경제성장률이 각각 3.6%, 3.9%를 기록하고 2016년에는 GDP가 5,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.

## □ 세계 20대 경제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

-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9년 10월에 '2020년 나이지리아 전략 비전(Nigeria Vision 20: 2020)' 발표를 통해 2020년에 세계 20대 경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.
-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전력 부족, 부정부패 등 경제성장 저해요소 개선 ② 석유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다변화, ③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, ④ 인프라 확충의 4가지를 제시하였음.
-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부정부패 등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개선된다면, 정부의 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음.

## II. 최근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 추이

### □ 석유산업과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

- 석유산업이 GDP의 15~20%, 재정수입의 70~80%, 총 수출의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등락과 산유량 증감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.
- 1970년 이후 원유 생산이 본격화되면서<sup>2)</sup> 석유부문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, 농업은 GDP의 40% 이상, 노동인구의 약 60%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.
- 1960년에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 농업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, 주요 수출원이며, 국민들의 주 수입원이었음.

1) 2010년 GDP 기준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,642억 달러로 아프리카 최대이며, 나이지리아가 2,540억 달러로 뒤를 잇고 있음.

2) 원유 생산은 1958년에 시작되어 일 산유량이 1960년대 초에는 수 만 배럴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 100만 배럴을 돌파하였고, 원유생산을 개시한 지 20년 만인 1979년에 230만 배럴까지 급증하였음.



## □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

- 2004~08년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, 농업, 금융서비스 등 비석유부문의 호조, 내수 증대,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연평균 7%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.
-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 유전지대인 니제르 델타(Niger Delta)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산유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, 비석유부문의 호조로 6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2009년에는 OPEC의 원유 감산 결정과<sup>3)</sup> 국제유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농업, 소매업의 호조로 7%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,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부문의 회복과 농업, 소매업, 서비스업 등 비석유부문의 성장세 지속으로 8.4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2009년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2.8%에 그치고 사하라이남 원유수출국가의 경제성장률이 5.2%를 기록하였으나, 나이지리아는 7%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.
- 2011년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통신·건설·금융업 등 비석유부문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7%에 가까운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<표 1> 나이지리아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 경제성장률 비교

단위: %

구분	2004~08	2009	2010 <sup>e</sup>	2011 <sup>f</sup>
<b>나이지리아</b>	<b>7.0</b>	<b>7.0</b>	<b>8.4</b>	<b>6.9</b>
<b>사하라이남 아프리카</b>	<b>6.6</b>	<b>2.8</b>	<b>4.9</b>	<b>5.5</b>
원유수출국	8.7	5.2	6.2	6.7
원유수입국	5.5	1.5	4.2	4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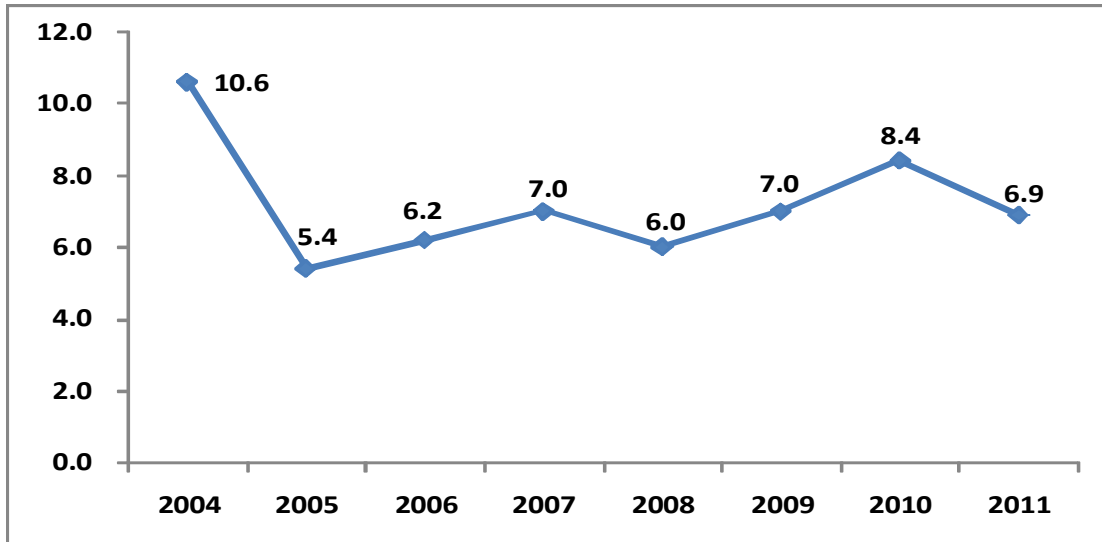
자료: IMF, Regional Economic Outlook, 2011.4.

3) OPEC은 금융위기 이후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420만 b/d를 감산하기로 결정함.



<그림 1>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률 추이 (2004~11)

단위: %



자료: <표 1>과 같음.

#### □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

- 나이지리아는 석유산업이 수출의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<sup>4)</sup> 상품수지·경상수지의 흑자 폭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.
- 상품·경상수지는 원유 수출 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해 왔으며,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2009년에도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, 각각 294억 달러와 21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.

<표 2> 나이지리아의 상품·경상수지 추이

단위: 억 달러, %

구분	2007	2008	2009	2010 <sup>e</sup>	2011 <sup>f</sup>
경상수지	311	318	219	142	308
경상수지/GDP	18.7	15.4	13.0	6.6	12.2
상품수지	381	470	294	334	408

자료: IMF, Country Report, 2011.2.

4) 2010년에는 수출 746억 달러 중 원유가스 수출이 72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97%를 차지하였음.



- 201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원유·가스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408억 달러, 경상수지 30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 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## □ 외국인직접투자 확대

-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부분 원유 및 가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. 2005년 이후 원유가격 상승으로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에 82억 달러, 2009년에는 87억 달러로 급증하여 서부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.
- 나이지리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986~90년에 연평균 7.2억 달러에서 1991~95년에는 연평균 12.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, 1998~2001년에는 연평균 10억 달러에 머물렀음. 2002~05년에는 연평균 2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- 2010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<sup>5)</sup> 정정불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보다 축소된 61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으나, 앙골라(99억 달러), 이집트(64억 달러), 리비아(38억 달러)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4개국 중 하나임.

**<표 3> 나이지리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**

단위: 억 달러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
나이지리아	49	61	82	87	61
서부 아프리카	70	95	127	127	113
아프리카 전체	463	631	734	602	550

자료: UNCTAD, World Investment Report, 2011.

5)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에 자원개발 붐에 힘입어 734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, 2009년에는 602억 달러, 2010년에는 550억 달러로 감소추세에 있음.



### III.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동력 분석

#### 1. 풍부한 천연자원

##### □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자원 부국

- 나이지리아는 2010년 말 매장량 기준으로 372억 배럴의 원유(세계 10위, 아프리카 2위, 세계 점유율 2.7%)와 5.3조 m<sup>3</sup>의 천연가스(세계 9위, 아프리카 1위, 2.8%)를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향후 중동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유전개발의 중심국가임.
- 원유 매장량은 리비아에 이어 아프리카 2위<sup>6)</sup>이나, 원유 생산량은 2010년 기준 246만 b/d로 아프리카 1위임.
- 나이지리아산 원유는 최고급으로 분류되는 저유황 경질유(API 지수 37~45)<sup>7)</sup>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, 북해산 브렌트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,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생산량의 약 절반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.
- 원유의 약 90%가 남부의 니제르 델타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, 주로 로열 더치 쉘, 쉘브론, 엑손모빌 등 석유메이저 기업들에 의해 개발·생산되고 있음.

##### □ 원유 생산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

- 정부는 니제르 델타 지역의 안정적인 원유 생산을 위해 이 지역 반군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사면 프로그램(amnesty program)을 실시하고 있음. 이 프로그램은 반군이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는 대신 사면과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.
-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면서 최근 원유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, 향후에도 원유 생산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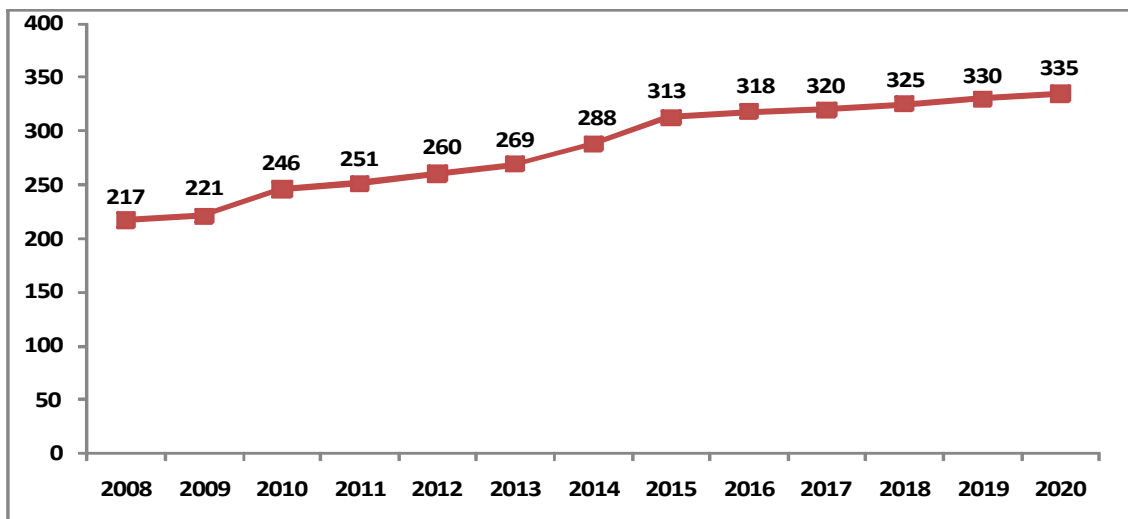
6) 리비아는 원유매장량 464억 배럴(세계 점유율 3.4%), 산유량 166만 b/d를 기록함.

7) API 비중은 원유의 비중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API 비중이 33도 이상은 경질(輕質)유, 30~32도는 중질(中質)유, 30도 미만은 중질(重質)유로 분류되고 API 비중이 높을수록 정제비용이 적어 고급유로 간주됨.



<그림 2> 나이지리아의 연도별 원유생산량 추이 (2008~20)<sup>주)</sup>

단위: 만 b/d



주: 2010년은 추정치, 2011년부터는 전망치임.

자료: BMI, Oil & Gas Report, 2011.6.

- 원유 생산량은 2009년에 221만 b/d로 전년(217만 b/d)보다 소폭 증가하였고,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1.3% 증가한 246만 b/d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향후에도 원유생산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에는 300만 b/d를 상회하고 2020년에는 335만 b/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천연가스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

- 천연가스는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하였으나, 최근에 경제성과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본격 개발을 추진하면서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음.
-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0년 125억 m<sup>3</sup>에서 2010년에는 340억 m<sup>3</sup>로 급증하였고, 2015년 590억 m<sup>3</sup>, 2020년 800억 m<sup>3</sup>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정부는 고질적 전력난 해소를 위해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미국 등 여러 국가에 가스 발전소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있어 관련 프로젝트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.





## □ 세계 제2위의 LNG 수출국으로 성장할 전망

- 나이지리아는 액화천연가스(LNG) 수출량이 2010년 190억 m<sup>3</sup>에서<sup>8)</sup> 2015년에는 이보다 58% 증가한 300억 m<sup>3</sup>로 예상되는 등 향후 LNG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제2위 LNG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.
- 1999년 9월, 보니섬(Bonny Island)에 38억 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 최초의 LNG 생산시설이 완공된 이후 2008년에 6번째 생산시설이 완공되면서 연간 292억 m<sup>3</sup>에 달하는 LNG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.
- 건설 중인 7번째 LNG 생산시설(연간 생산능력이 116억 m<sup>3</sup>)이 2012년에 완공 되면 나이지리아는 카타르에 이은 세계 제2위의 LNG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.

<표 4> 나이지리아의 천연가스 생산량 및 LNG 수출량

단위: 억 m<sup>3</sup>

구분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
천연가스 생산량	328	232	340	380	400	480	520	590
LNG 수출량	205	160	190	210	210	260	275	300

주: 2010년은 추정치, 2011년부터는 전망치임.

자료: <그림 2>와 같음.

## 2. 풍부한 내수시장

### □ 아프리카 최대의 인구 보유

- 나이지리아는 2010년 기준 인구가 1억 5,220만 명(아프리카 전체의 약 15%)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인구 보유국이며, 중국, 인도, 미국,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세계 제8위를 차지하고 있음.
- 국제연합인구기금(UNFPA)이 2010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 나이지리아의 인구가 2억 8,900만 명으로 늘어나 인도, 중국, 미국,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제5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.

8) LNG는 대부분 미국 및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음.



- 나이지리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~10년에 2.3%이었으며, 향후에도 2%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구매력 확대에 따른 내수증대

- 최근의 고성장으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구매력 확대에 따른 내수증대가 나이지리아의 성장잠재력으로 인식되고 있음.
- 정부는 4월의 대선을 앞두고 2011년 3월에 최저임금을 종전 7,500나이라에서 2배가 넘는 1만 8,000나이라로 대폭 인상하였음. 또한 공무원 임금의 인상률이 2011년 20%, 2012년 10%로 예정되어 있어 구매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통신업, 금융업 등 비석유산업의 성장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20~30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중산층의 확대는 내수증대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3. 건설업의 성장잠재력 풍부

#### □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
- 나이지리아의 인프라 환경은 독립 이후 기술력과 자본의 부족, 정부 관리의 부정부패 등으로 보수 및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열악한 상태임.
-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생산량 확대로 오일머니가 증가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인해 도로, 철도, 발전,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.
- Global Construction Perspectives and 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건설부문은 2020년까지 128%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여 인도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.
- 이 성장세를 바탕으로 나이지리아는 향후 10년 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, 천연가스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건설 및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등이 지속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됨.



## IV.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

### 1. 치안 안정

#### □ 니제르 델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치안 안정화 노력 필요

- 니제르 델타 지역에 이 나라 원유의 대부분이 매장되어 있어, 이 지역의 치안 안정 여부가 원유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니제르델타해방운동(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 Delta: MEND) 등 반군 세력은 석유 이권의 배분을 요구하며 석유생산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원유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왔음.
- 2008년에는 치안 악화로 산유량이 전년보다 8.3% 감소한 217만 b/d에 그쳤음.
- 지금도 일부 반군의 석유시설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반군세력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경우 원유생산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.
- 따라서 정부의 유화정책 지속과 치안안정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.

#### □ 종족·종교 간 갈등 완화

- 나이지리아는 250여 개의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교적으로도 북부 이슬람과 남부 기독교로 양분(50:50) 되어 종족·종교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유혈 충돌과 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- 북부와 남부의 교차점에 위치한 플레토(Plateau)주 조스(Jos)에서는 2010년 12월에 무슬림과 기독교 간 유혈 충돌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2010년에 총 1천 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.
- 또한 최근에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격이 빈번하여, 이슬람 급진단체인 보코 하람(Boko Haram)은 2011년 6월 중순에 수도 아부자(Abuja)의 경찰 본부에 대한 폭탄테러 공격 등 2011년 5월 조나단(Goodluck Jonathan) 대통령의 취임 이후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을 주도하고 있음.
- 보코 하람은 서구식 교육·문화를 죄악시하고 이슬람법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하며 주로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테러활동을 하고 있음.



-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치안 강화 노력과 아울러 종교적, 종족 간 화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빈곤 구제, 고용 창출, 교육의 보급, 분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.

## 2. 인프라 확충과 생활수준 향상

### □ 인프라 확충 시급

-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특히 수송인프라와 전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함.
  -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, 빠른 인구증가율에 비해 도로, 철도 등 수송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되어 급증하는 운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내륙 운송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.
  - 발전설비가 노후되어 정전이 수시로 발생하고, 인구의 약 60%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, 산업계도 디젤발전기에 의존하는 실정임. 2010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은 135kWh로 주변국 가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.
- 2010년에 국제연합개발계획(UNDP)이 발표한 '인간개발지수'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전체 169개국 중 142위에 그쳤으며, 보건, 교육 등 사회 환경 전반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음.

### □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

-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제2위의 경제대국이나 1인당 GDP가 1,700달러에 불과하고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(population below poverty line)가 총 인구의 70%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.
- UNDP는 나이지리아가 극소수 부유층과 대다수 극빈층으로 나뉘어 세계에서 부의 분배가 가장 불공평한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한바 있음.



### 3. 부정부패 해소

#### □ 부정부패는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 중의 하나

- 부정부패는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 중의 하나임.
-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, 2011년 6월에는 반콜라(Dimeji Bankola) 전 국회의장이 수백만 달러의 정부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체포된바 있음.
- 정치 거물의 체포는 2011년 5월 출범한 조나단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험무대로 간주되고 있음. 2007년 이후 많은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, 처벌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#### □ 부패지수 순위 하락 추세

- 나이지리아의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) 부패지수는 2.4점으로 178개국 중 134위를 차지하여 전년 130위에 비해 4계단 하락하는 등 최근 부패지수 순위가 하락 추세에 있음.

<표 5> 나이지리아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
순 위	142/163	147/179	121/180	130/180	134/178
총 점	2.2	2.2	2.7	2.5	2.4

작성: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 
 책임조사역 박대원 (3779-5723)  
 parkdw@koreaexim.go.kr